

2020

제3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예술활동의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예술활동

Editor's Letter

칼럼

문화정책이슈 1

문화정책이슈 2

문화정책이슈 3

예술 + 00

정책보고서 갈무리

문화정책 뉴스 클리핑

공동의 위기, 예술인의 몫은 존재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틈에, 봄은 왔다

포스트봉준호를 위한 부산문화정책의 변화

사회를 치유하는 예술활동 - 먼구름 한형석 선생

사회복지사가 보는 문화예술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통한 실태조사

0304

예술활동의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예술활동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3호의 주제는 '예술활동의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예술활동'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술인 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짚어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 문화정책 트렌드를 살펴보는 「문화정책 이슈」에서는 사회적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상황과 사회적 대처방식에 대해 김건우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표가 예술활동가의 시각에서 살펴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최근 영화 '기생충'의 성공으로 화자되고 있는 '포스트-봉준호 법'이 지역 영화 환경의 다양성을 토대로 한 새로운 문화생태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차민철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운영위원장의 글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시기 자유 아동극장과 색동 야학원을 만들어 전쟁으로 상처 받은 어린이들을 문화예술로 품어 안는 등 우리 사회의 아픔을 예술활동으로 치유하는데 한평생을 바친 먼구름 한형석 선생을 부산일보 이상헌 기자가 재조명합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들어보는 <예술+○○>의 이번 시선은 <예술+복지>입니다. 인간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바라보는 예술은 어떤 차이와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윤성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사의 시각으로 문화예술계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정책보고서 갈무리 코너에서는 지난 2018년 시행된 <부산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을 통한 실태 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부산지역의 인식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한 성과가 있다 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 흔쾌히 원고를 적어주신 필진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전국가적 격리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로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며 각자의 집 발코니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던 이탈리아 한 도시의 광경이 기억에 남습니다. 연이은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코로나 블루(corona blue)¹⁾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리의 정서적 우울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은 우리 사회의 정서적 안전망입니다. 이러한 예술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국가별로, 지역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장기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예술활동이 '잠시 멈춰야 할 존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서적 안전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향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

공동의 위기, 예술인의 몫은 존재하는가?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전대미문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아주 오랫동안 21세기 문명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으로 각인될 공산이 커졌다. 사실 2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꽤 튼튼해 보였다. 하지만 폭발적인 전염속도와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집단 감염은 패닉에 준하는 충격을 주었고 일상을 떠받치던 다양한 골조는 흐물흐물 녹아져 내렸다. 물질적인 육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간의 유물론을 떠올리면 일상의 붕괴가 곧 생활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하다. 특히 위기는 사회에서 취약한 부분을 가장 아프게 하기에 차별적이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예술, 예술인의 상황을 묻는 건 이제야 발견하게 된 어떤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고통스럽게 다시 직시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일상성의 붕괴와 공공적인 것의 폐쇄

가장 일상적인 것의 풍경은 가장 관습적인 것에 가깝다. 약속을 하고 만나고 때가 되면 모이고 또 이동하는 것이 그렇다. 위기는 이런 것들을 '자가 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로 간단하게 붕괴시켰다. 얼굴을 맞댄 일상이 가장 취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것이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일상의 붕괴와 더불어 견고하게 놓여 있던 공공적인 것이 폐쇄되었다는 점이다. 가깝게는 복지관이나 도서관이 무기한 폐쇄되었다. 청소년 시설이나 보육시설도 폐쇄되었다. 적어도 일상의 붕괴가 공공적인 것의 빠른 폐쇄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억할 만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공공적인 것의 폐쇄가 사람들에게 다른 선택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학생들은 여전히 학원으로 몰려가고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은 동네 공원에 등장했으며 체육시설의 빈자리는 학교 운동장이 대신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공공적인 것의 후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고 어쩌면 공공적인 것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공공적인 것의 책임 회피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작년 연말부터 예정되어 있던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었다. 규모가 큰 것들은 상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지만 정작 예술인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은 공공적인 것의 폐쇄에 의한 것이다. 잇단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2월 20일 자로 문화예술계의 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내에 코로나19 긴급생활자금 용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기존 예산에서 30억 원을 우선 배정했다. 3월에 실시된 해당 대출은 신청액만 43억 원을 넘기고 종료되었으며, 여기에 추가로 40억 원을 추가로 배정해 신규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논의 과정에서 쟁점 중 하나는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다. 최초 안에는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당사자의 확인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하지만 쟁점이 있었다. 상대방이 공공기관일 경우에 그와 같은 확인이 용이하겠는가라는 점이었다. 정부 입장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가 민간 내의 민-민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 예술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민-관 관계에서의 피해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이런 에피소드는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진단하는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존중감 없는 대책들

안타까운 것은 다양한 문화기구들이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하나같이 예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를 테면 지역의 기초문화재단들은 예정되어 있던 예술지원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 실시하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작업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공모사업의 확대가 실효성 있게 느껴질리는 만무하다. 더구나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별로 실효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은 티켓 1+1 지원 정책이 재탕되었다. 한쪽에서는 공연장 내에 관객들이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구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는 와중에 다른 한 쪽에서는 공연을 더 보라는 지원정책이 나오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자연스레 나온다. 급기야 티켓 1+1 정책을 포함한 공연 관람료 할인 정책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연기되는 촌극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 지원정책 중 현금지원 정책에 가장 가까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사업에는 1만 4,803명이 몰렸다. 작년에는 4,970명 수준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올해 사업규모가 커져서 상반기 6천 명, 하반기 6천 명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신청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3배에 가까운 지원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술인 전체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고 영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

서 예술인소셜유니온 등이 포함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라는 문화예술인 단체는 '창작준비금을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늘려서 예술인들의 생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어떠한지 분명한 방향을 보여준다. 우선 까다로운 조건을 달지 말고 지급하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상반기에 실시하고자 했던 공모지원사업비를 창작준비금 성격의 지원금으로 전환해서라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재원은 하반기에라도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예산을 밀어내기 위해 무리하기보다는 예정되어 있던 사업계획의 성격을 바꿔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에 처한 예술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상반기를 버텨낼 수 있어야 하반기 사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시급성을 고려해 가장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가장 간단하게는 공연이든 축제든 예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자원만큼은 당초 출연 당사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별다른 선별 과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 적어도 공연 취소가 예술인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약속되었던 비용을 지급한다는 건 '예술인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예술인의 몫은 권리

최근 위기 상황을 맞아 국가마다, 도시마다 다양한 예술인 지원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동안 축적한 공연 등의 영상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던 공연 영상도 제공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연기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체와 예술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스턴 시는 예술가 지원기금을 긴급하게 편성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모든 공연, 낭독회 등의 행사 참가비와 취소된 회의나 레지던시, 작업과 연관된 여행비용까지 500달러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수업이나 강좌의 취소로 손해를 본 예술가와 부업을 잃은 예술가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사람 관계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때가 위기의 때이듯이, 예술인 정책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 역시 위기 때다. 현재까지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공공이 여전히 예술인의 문제에 대해 제3자의 위치에 있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위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술인의 위기는 공공과 예술인이 공동으로 당사자임을 전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현장의 예술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예술인의 몫을 만들어 건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회의 부분에서는 다양한 몫들의 분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 적어도 20~30조에 가까운 정부의 금융, 재정지원 정책이 쏟아졌는데 여기에 예술인들의 몫은 어디에 있는가.

위기에 함께 버틸 수 있는 몫을 요구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늦었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봄에, 봄은 왔다.

- 사회적 안전망이 닳아야 할 곳들

김건우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표

그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고, 꽃이 폈다. 흠날리는 꽃잎 따라 배시시 콧바람 보탬 적에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함께인다. 하얗게 떨어지는 벗꽃이 무상하게 거리는 비였다. 밟지 않은 꽃잎만 곱게 날린다. 봄의 지척에 있는 상징, 식당은 하릴없이 봄의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봄의 기운에 들뜬 사람들도 찾기 힘들고, 그와 함께 여지없이 울려 퍼질 노래들이, 노래하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3월은 갔고 4월을 맞았다. 많은 경우에 재난 상황은 함께 함으로 극복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만남 자체가 위험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여기서 이는 이질감과 공포,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개인의 불안함과 무력감은 그 빈도에 비례해서 커진다. 한산한 거리와 비어있는 점포들, 자영업자들의 위기로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경제 공황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에 가중되어 어지럽기까지 하다.

사람들의 만남, 특히 많은 집객을 목표로 하는 공연예술계의 타격도 심각하다. 얼마 전 3월 부산 공연예술계 총매출이 11만 원에 그쳤다는 기사를 접했다. 2020년 1월 47억 원에 비하면 사실상 매출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많은 행사,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기약 없는 연기를 하는 가운데, 이를 생산하는 자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가 육체적, 심리적 불안에 이어 경제적 불황에 대한 공포로 격양되어 가는 가운데 오히려 들춰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들.

위기가 일상이 된 예술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번 봄은 확연히 다르긴 하다. 하지만 내겐 겨울을 지나며 겪는 고독과 불안함, 그리고 이 배고픔이 그리 낯선 일상은 아니었다. 주변 지인들 대부분이 지역에서, 그리고 메이저가 아닌 독립 혹은 비주류 예술가로, 20대에서 4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통계예의 대상이 되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실

상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등 극장과 단원을 보유한, 그나마 매출이라는 통계치를 낼 수 있는 단체, 개인에 한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서조차 잡히지 않는 많은 이들이 (비단 예술가뿐만 아니라) 지금껏 버텨 왔던, 그리고 또 견뎌야 할 겨울에 대한 이야기가 더해져야 한다.

2018년 문체부에서 발표한 예술인 실태 조사¹⁾에 따르면 한국의 예술인 10명 가운데 7명은 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예술 활동으로 연평균 수입 1,281만 원을 번다. 이 통계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예술인으로 등록된 5,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또한 건축가등 소득 수준이 높은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인원과 40대 이상 기성세대 예술가도 포함된 평균치이다. 이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평균 수입 zero(0원)인 29%의 예술가들이다.

가난하니까 예술가다 느니, 이렇게까지 배고프다 따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예술가를 대하는, 혹은 예술의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짚고 가야 한다. 2010년 기준 48년간 직업별 평균 수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종교인이 가장 장수하며, 예술인, 체육인, 작가, 언론인은 평균 수명 70세에 못 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실존과 진실을 찾는 일을 함은 비슷할 진데 종교인과 확연하게 수명차(10년 이상) 나는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가 포함되었지만 문득 떠오른 차이는 고용에 대한 안정성과 사회적 인식 차이가 아닐까? 즉 사회적 안전망 밖의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 단명 그룹에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 고용이, 아니 생존에 대한 불안이 조금이라도 덜어진다면 어떨까? '실존과 진실을 찾는 일을 하며 보다 많은 이들이 삶을 탐구하고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으며 보다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낭만적 상상을 해 보기도 한다. 보다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보다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해 작동되어야 할 시스템은 낭만적 상상력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안전망이란 것이 갖춰진다.

1)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DataCD=0406000000&pSeq=1746

낭만적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창궐 이전과 이후, 우리의 삶은 확연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이질적인 불안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일찍이 경험한 적 없는 상황이기 그 당혹감은 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불평등과 배제, 차별과 착취의 구조 속에서 반복되어 왔던, 사회 시스템 조차 적용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상황이 다르다. 이 파괴의 고리는 사람, 동물, 자연을 가리지 않았고 지금 우린, 전 세계적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실은 우리가 충분히 미연에 발견하고 확인하여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방지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최근 10년간, 국가적 재난이라 부를 수 있는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사회안전망의 허술함을 토로하는 것이 순서처럼 느껴진다. 허나,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두 달 남짓, 코로나19는 가장 연약한 구조에 있는 것부터 핏물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그에 속해 있는 노동자. 그리고 조그만 작업실과 연습실을 꾸려 창작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 벌써부터 이들이 쓰러지고 있는 소리가 허다하게 들린다. 특히 임차로 생계의 터를 마련하고 있는 이들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영세한 이들에겐 이 시기를 버틸 만한 담보도 없기에 대출도 힘들다. 동네 조그만 상점들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 길에서 혹은 지역 축제에서 노래들을 수 있었던 예술가들부터 쓰러지고 있다. 실태 조사에서조차 외면받고 배제되었던 이들의 삶이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예술계에서 발표된 대책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300만 명에게 8,000원씩 관람료 할인권 지원, 행사 취소, 연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30억 규모의 예산 편성, 소극장 200여 곳과 공연예술단체 160곳 선정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도의 계획이 눈에 띄는 실정이다.

여전히 예술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허술함, 그 태도에 대한 인상이 가시질 않는다. 3월 23일 독일의 문화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500억 유로(한화 67조) 규모의 문화예술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창조할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이며, 이는 예술가가 없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은 필수적이다.'라고 문화예술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는, 사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핏물고 상처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부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불안이 엄습한다. 세상은 더 거대하고 많이 가진 자들에 의해 더욱 빠르게 시스템화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이 끝나지 않은 겨울은 자영업자들 보다는 대기업이 버틸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마련이다. 예술계 또한 거대 기획사 혹은 방송계가 지니고 있는 자본력과 비대면 유통이 가능한 시스템, 플랫폼을 획득한 자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되면 지금껏 만들고 있던 문화적 민주주의, 다양성 또한 급속도로 사라지는 사회가 진행될 위험이 크다. 만남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문화, 경제, 사회, 자연)를 기대하기 힘들어 질 수도 있다.

2020년의 4월, 아니 끝나지 않은 겨울. 우리는 다시 '역사는 진보하는가?'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섰다. 단순히 지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껏 만들어 오고 있던 시스템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선택들이 불거져 오게 한, 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결국 역사와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지를 묻는 엄중한 심판의 시기인 것이다.

마스크 너머의 세상을 향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들의 용기를 발견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예술가이기 때문에 보호, 지원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구축하고자 하는 안전망이 차별과 혐오, 착취와 배제를 넘어 보편적으로 닿을 수 있을 때, 그곳에 예술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낮설지만 날 선 눈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곳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며, 춤추고 있다. 앞으로 마주 할, 더 많은 종류의 재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희망하는 만민의 노래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틈에 봄이 온 까닭이다.

포스트-봉준호를 위한 부산 문화정책의 변화

- 지속가능한 부산 문화예술정책을 위하여

차민철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운영위원장

재난과 문화예술

2020년 4월 6일 오후 1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다양한 영화제와 영화 단체 관계자들 몇몇이 부산시청 로비에 모였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는 직후였다. 방역을 위한 통제선과 이런저런 설비들이 갖추어진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부산시청 로비에 모인 참석자들의 표정은 마스크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은 무언지 모를 절망과 답답함과 분노를 내뿜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고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중 20퍼센트의 지자체 부담금 마련을 위해 상반기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 예산을 삭감하거나 행사 취소를 논의 중이라는 부산시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부산시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1시간 가량 앞두고 참석자들은 상황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바로 면담 장소로 향했다.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면담 직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지 못했지만 사안의 중대함 때문인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어떠한 이견도 없이 통일된 입장과 의견을 모았다. 우연이었을까? 면담 직전 논의를 하던 중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공유되었다. 서울시가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는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전시·공연·행사 등이 취소·연기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 단체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및 금융지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문화예술 행사 예산 삭감 혹은 취소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참석자들에게 부산의 상황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이날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예산 삭감이나 행사 취소 시에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했고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다행(?)인지 부산시 담당부서 측에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말을 전해왔다. 급한 불은 꺼진 것일까?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불확실함을 지닌 채 참석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 했다. 그러나 전면 철회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에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부산시의 문화예술 인식에 대한 회의감과 근본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에서 관련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제안을 먼저 했다면 어

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상 초유의 재난으로 인한 사회 모든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한 공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결정 주체들의 노력에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지니지 않는 사람은 없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과 관련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긴급한 재난의 상황에서 문화예술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점은 주목해야 한다. 안전과 생명, 경제와 생계라는 키워드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재난, 그것도 감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적 재난의 긴급함과 중대함을 간과하지는 것도 아니다. 문화예술이 안전, 생명, 경제, 생계와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인간의 삶과 현실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무시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재난 상황에서의 문화예술'. 지금의 상황이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점으로 작용해 문화예술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

포스트-봉준호? 거시와 미시

올해 한국 영화계, 나아가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건(?)은 아마도 영화 <기생충>의 세계무대 장악일 것이다. 영화에 대한 미학적 평가는 논외로 하고, <기생충>이 만들어낸 파장이 사회 각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포스트-봉준호 법'(가칭) 발의를 위한 영화인 지지를 비롯해 영화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전반에 새로운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상영업 겸업 제한,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금지,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1천 명 이상의 영화인이 동참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상황에 영화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생충> 신드롬과 '포스트-봉준호'라는 키워드가 한국 영화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현재의 움직임들이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론이 없겠으나 그 실천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보다 심화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즉, 법, 제도, 정책은 물론, 사안에 관한 인식과 문화를 형성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현재 한국영화가 처해있는 상황은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는 물론, 문화적·예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긴급 재난 상황과 다르지 않다. 한국영화 전반의 상황이 그러하건데,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한국영화산업을 고려하면 지역 영화, 특히 지역 독립·예술영화의 현실이 어떨지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예컨대, 부산은 서울 및 수

도권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풍부한 영화 분야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지역'과 '독립·예술영화'라는 이중의 마이너리티를 지닌 부산 영화의 현재와 미래가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포스트-봉준호 법'으로 돌아가 보자. 이 법안의 명칭에서 한국영화의 현재 상황과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에 관한 인식의 특성을 가능해볼 수 있다. '포스트-봉준호 법'이라는 명명은 한국 영화계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영화의 가장 최근의 큰 성과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결과는 성공적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나 정책이 아닌 강제력을 지닌 '법' 제정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의도 또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영화가 처한 상황 개선의 필요성이 그만큼 중대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욱 깊고 세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 봉준호의 <기생충>으로 촉발된 '포스트-봉준호' 시대가 한국영화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다원성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영화 생태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자칫 봉준호가 이루어낸 성과를 가시적·정량적 목표를 위한 거시적 관점으로만 전면화해서는 안 된다. 미시적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과 영화 분야 인력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관한 세밀한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법 제정은 물론,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나아가 인식 전환과 문화 정착으로까지 확장되어 지속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부산 영화를 위하여

이 원고를 청탁받고 코너의 기획 의도를 살펴보면 중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정서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예술 활동'이라는 주제를 확인하고 문득 떠오르는 개념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었다. 생태적·환경적 관점에서 등장한 이 개념은 1987년 UN 산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브룬틀랜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공식적 정의 이후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인간 활동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담론은 세계 각국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정책 및 제도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물론, '지속가능성'이라는 다분히 관념적인 개념을 사회 각 분야나 문화예술의 구체적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영화, 특히 부산 영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의 수립은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부산은 2014년 12월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획득하는 등 자타공인 '영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지속해왔다. 다양한 물적 인프라는 물론, 인적 자원 역시 타 지역(서울 및 수도권 제외)에 비해 풍부한 상황이다. 한국의 대표적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크고 작은 영화제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영화의전당, 국내 최초의 영상위원회인 부산영상위원회, 영화 영상 관련 공기관들의 부산 이전 등 외형적으로 보면 부산 영화는 발전 일로에 있

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네마테크 부산 철거(2011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사태(2014~2018), 부산 국도예술관 폐관(2018년 1월) 및 아트씨어터 씨앤씨 무기한 휴관(2018년 3월),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인사 문제(2018년 2월 및 2019년 10월) 등 진통을 겪은 것 또한 사실이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다. 더욱이 부산 영화의 내부적 현실은 외부적 시선에서 보이는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르다. '영화산업은 없고 영화제만 있는 도시', '매력적인 영화 촬영지', '심각한 영화 인력의 역외 유출' 등 부산 영화계는 여전히 상충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영화산업이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의 영화 창작 인력들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늦기 전에 미시적 관점의 문화·예술적 인식과 거시적 관점의 산업·경제적 논리 사이의 균형감 있는 접점을 찾아야만 할 때다. 미시적 관점의 영화문화 없는 거시적 차원의 영상산업 육성 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고유의 영화문화를 토대로 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정책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경제 논리를 탈피해 소프트웨어, 나아가 휴먼웨어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역의 인적 자원과 지역 고유의 영화 문화를 중심으로 둔 중장기적 영화 정책과 관 주도도가 아닌 민·관·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한 대안적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의체로서 부산영화진흥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적 있는데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 인력을 위한 실질적 지원, 특히 제작 지원과 더불어 부산 영화의 배급과 상영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독립영화유통배급지원센터(가칭)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화 도시 부산에서 사라져버린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부활은 더할 나위 없이 시급하며, 해운대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균형 발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과제다.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사업에 부산 영화의 각 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끝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맥락에서 영화와 타 분야의 통섭적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에 열거한 제안들은 너무나도 기본적이며 당연할 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이며 당연한 것들이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 부산의 영화인들을 각자도생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몰아넣지 말고 예술적 연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영화 도시 부산, 이제 거시적 관점의 '선택과 집중'이 아닌 미시적 관점의 '부산과 다원성'이라는 토양을 다져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 가능한 부산 영화의 싹을 틔울 때다.

<기생충> 효과와 '코로나19' 사태라는 이윤배반적인 상황에서 생계를 위협받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영화인들에게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를 치유하는 예술 활동 - 먼구름 한형석 선생

이상헌 부산일보 기자

코로나19는 국경도, 종교도, 나이도 묻지 않는다. 그 와중에 바이러스는 눈이 달렸는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희한하게도 잘 찾아낸다. 약자에게 유독 가혹한 재난의 불공평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관찰된다. 외신이 전하는 혼돈의 현장은 충격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모자라다. 시체와 산송장을 남겨두고 의료진이 사라진 노인요양원에서,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공포가 부른 총기와 탄환 사재기 현장에서, 극단적인 각자도생의 민낯을 목격한다. 또 다른 뉴스에서 생업을 잠시 중단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사지로 들어가는 의료인, “너무 적어 죄송하다”는 글과 함께 어렵사리 모은 마스크를 놓고 간 지체장애인의 선한 연대를 보면서 그래도 살 만한 세상임을 절감하고 감사한다. 없는 이에게 재난은 더 잔인하지만, 가장 먼저 슬퍼하고 따뜻한 손을 내미는 건 대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다. 공감 능력 때문이리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양심”이라는 신영복 선생의 말처럼 절망의 시대를 건너는 법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양심의 외침에 호응하는 일이다. 혼자만 잘한다고 결승점에 다다를 수 없는 이인삼각 경기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비결은 ‘나 혼자 산다’보다 ‘함께 산다’에 있다는 상식을 새삼 확인한다.

한국전쟁 난리 통에도 ‘살아남기’가 최대 과제였다. 거리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로 넘쳐났지만 내 앞가림에 바쁜 사회가 이들을 챙길 여력은 없었다. 전쟁의 참화는 없는 이들에게 더 지독했고, 아이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먼구름 한형석(1910~1996) 선생이 1953년 8월 부산 서구 부민동 변전소 옆 언덕배기에 목조 단층으로 자유아동극장 겸 색동 야학원을 만든 건 비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아동극장 창립 취지서에 그런 절박함이 읽힌다. “국가 민족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걸식아동, 부랑 아동, 구두닥이, 신문팔이 등 세상이 버린 다음 세대 주인공들에게 정신적 주식물을 제공할 것이며, 암담한 거리에서 방황하는 천사에게 활기 있는 광명의 앞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영화를 비롯해 환등, 음악, 아동극, 무용, 인형극”으로 아동의 정서를 보듬을 작정이라고 했다. 눈에 밝히는 건 다음 대목이다. “이런 일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설립 운영할 것이지만, 막연히 그날을 기다릴 수 없어 우선 뜻을 같이하는 몇몇 동지의 협력 결속으로 이 시급하고 다란한 사업에 첫 길을 들어가려고 한다”. 꿈도 없이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을 일시켜 세우는 일이야말로 촘촘을 다뤄야 할 일이었다.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국가에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림 1 자유아동극장 전경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 자리에 세워진 문화예술 대피소

그는 모친한테서 받은 백색 전화기를 팔고, 사재를 탈탈 털고, 주변 지인에게 읍소를 해 극장 터를 매입했다. 목수를 구할 돈이 없어 공사 전 과정을 그가 책임졌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자유아동극장은 6명이 앉을 수 있는 길쭉한 의자 70개가 있어 한 번에 4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명작동화를 각색한 영화를 비롯해 아동극과 그림연극, 인형극을 2년간 500회가량 공연했다. 극장을 찾은 아이들은 11만 5000명에 이르렀다. 밤이 되면 자유아동극장은 색동야학원으로 변신했다. 버림받은 전쟁고아를 비롯해 9~17세 청소년 94명이 밤마다 야학에 나왔다. 국어, 산수, 과학, 보건 과목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사생, 공작 같은 예술 교육도 진행됐다. 배움만큼이나 주린 배를 해결할 목적으로 오는 아이들도 많았다. 그 아이들과 교사였던 부산대 학생의 끼니를 해결하라 정작 한형석 선생 식구들은 밥을 제대로 못 먹기도 했다는 후일담도 들렸다. 낮에 극장, 밤엔 학교였던 그곳은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문화예술 대피소였다.

자유아동극장 아이디어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었다. 예술구국이란 신념을 가슴에 새기고 중국에서 항일 운동을 하던 그는 중국 최초의 아동극장을 만든 주역이기도 했다. 1935년 산동성 지남 산동성립여자사범부속소학교 교사로 근무했는데, 현대식 교사를 건립할 당시 그의 제의로 중국 최초의 아동극장이 만들어졌다. 그곳에서 1937년 6월 폴란드 애국음악가 이야기를 다룬 그의 첫 아동극 ‘리나’를 발표했다. 그가 조직한 아동극단에서 공연했는데, 시나리오, 작곡, 연출, 주연까지 그가 맡았다. 몇 년 뒤 중일전쟁으로 거리를 헤매는 전쟁고아를 수용하기 위해 국민당 정부 지원으로 만든 산시성 시안 제2보육원에서 한형석 선생은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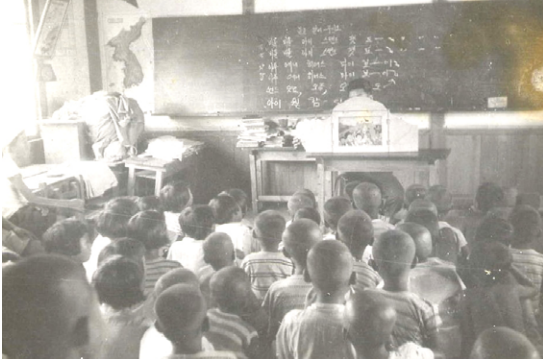


그림 2 그림연극 공연

적 재능이 있는 아이 서른 명가량을 따로 모아 아동예술반을 만들었다. 중국 국민당 간사단 음악교관, 광복군 예술조장으로 전시 문화선전활동을 하는 와중에 제2보육원 아동예술반 주임까지 맡아 1인 3역을 했다. 아이들에게 미술, 문학, 음악, 무용을 가르쳤는데, 중국의 저명한 화가로 성장한 량원양, 시안시 예술학교 교장을 지낸 양치 선생을 비롯해 제2 보육원 아동예술반 제자들이 여럿 생존해 있다. 몇 년 전 만난 양치 씨는 “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육원에 갔기 때문에 아무런 꿈도 없었는데, 한형석 선생님의 예술반 활동이 일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라고 회고했다. 1944년 시안에서도 아동극장을 만드는 데 한형석 선생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항전 시기 부모를 잃고 고향을 떠난 아이들의 역경을 그린 아동가극 ‘낙원행진곡’을 비롯해 ‘어린 양들’ ‘집 없는 아이’를 발표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문화예술은 누구나 향유해야 할 보편적 권리

아동극장과 아동가극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귀국 뒤에도 이어졌다. 1948년 뒤늦게 귀국선을 타고 한국에 돌아온 뒤 그는 정부 고위직을 마다하고 부산으로 낙향했다. 그가 의욕적으로 매달린 건 국립극장으로 추진하던 부산문화극장 개관이었다. 곡절 끝에 국립극장은 무산됐지만, 35년 된 낡은 보래관을 고치는 데 막대한 사재를 털어 넣었다. 수리비의 절반가량은 빚까지 내서 그가 충당했다. 그렇게 공을 들인 건 그저 그런 극장이 아니라 문화예술 철학이 담긴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으리라. 1950년 6월 18일 문을 열기 전 몇몇 신문에 실린 기사에 그런 생각이 엮여있다. 1950년 6월 11일 자 자유민보에 문화극장을 만든 한형석 선생의 포부가 실렸다. “예술은 몇몇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되고, 특수지역 시민만 향유해서는 안 된다”로 시작하는 글에서 그는 “무대 예술 운동을 중앙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분산해야 하며 그것을 육성하는 근거지를 지방에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문화극장

은 교육과 맥을 이어 아동의 예술적 맹아를 보호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글을 맺었다. 문화 예술이 소수자의 특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권리라는 것과 함께 문화 자치분권에 일찌감치 눈을 뜬 그의 혜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극장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화 예술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확인할 수 있다. 그즈음 산업신문에 실린 기사에서도 “이 극장이 중점을 둘 것은 연극과 오페라이며, 아동극과 교육예술에도 치중할 것이며, 교육예술은 무료로 청소년 면학도를 위해 공개할 작정”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문을 연 지 불과 일주일 뒤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문화극장은 국회의사당, 미군 전용극장으로 징발됐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1953년 4월 화재로 전소되면서 극장은 기능을 상실했고, 한형석 선생이 품었던 문화예술교육 꿈도 접어야 하는가 싶었다. 좌절하고만 있기엔 시대가 너무 엄혹했다. 사재를 털어 고친 문화극장이 소실되면서 꿈을 접어야 했던 그가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이 눈에 밟혀 몇 달 지나지 않아 자유아동극장을 만드는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재정난으로 어쩔 수 없이 2년 만인 1955년 자유아동극장도 문을 닫아야 했고, 그 일은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았다.

아동극장이란 개념조차 없던 시절, 선도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교육 거점 마련에 나섰던 점만 고려해도 그는 남들보다 한참은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다. 시대를 앞선 생각은 이룰테면 1972년 제1회 부산 시민의 날 기획 행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리예술의 일환으로 가장행렬을 하면서 ‘집 앞 쓸기 행렬’을 무용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일상을 예술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읽힌다. 시민의 날 하루만큼은 통문을 해제하고 ‘차 없는 거리(無車道路)’로 만들자는 제안도 많이 앞선 생각이 다.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 그곳을 예술 공연으로 채운다는 발상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 시민의 날 계획서에선 “거듭 말하지만 이 일련의 행사를 꾀는 원칙은 자발적 참



그림 3 복화술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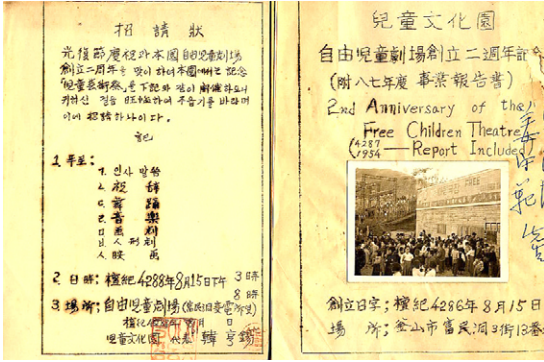


그림 4 자유아동극장 2주년 기념행사 초청장

여에 있다. 시민의 날은 시민 개개인이 방관적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데 그 의의가 깊다”라고 강조한 대목이 나온다. 문화예술교육의 요체가 주체성과 자발성에 있음을 간파한 생각이다. 신명이 나지 않는데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문화예술교육임을 체득한 덕분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해법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항일 투쟁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예술의 역할이 크다는 걸 그는 익히 알고 있었다. 문화예술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예술 구국의 신념으로 독립 투쟁에 나섰던 때처럼 문화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해법이라고 믿었다. 중국의 아동극장, 부산문화극장, 자유아동극장으로 이어온 그의 철학은 후대에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명명하기 전부터 이미 확고하게 정립됐다.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가, 아마추어 음악인인 아브레우 박사가 방황하는 빈민촌 아이를 모아 카라카스의 작은 차고에서 음악 교육을 시작한 게 1975년이였다. 전 세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열풍을 부른 엘 시스테마도 자유아동극장보다 20년은 더 뒤의 일이었다.

코로나19 사태의 한가운데 한형석 선생이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루하루 희망도 없이 시간을 버터내는 거리의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이 삶을 바꿀 사다리가 된 것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데 예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짠 것이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누구보다 가까운, 흔치 않은 실천가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살기,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일깨우는 예술 활동 최전선에 그가 있었을 것이다.

부산문화재단 연구원 한형석 기념사업

부산문화재단에서는 2020년 연구원 한형석 선생의 탄생 11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친다. 한형석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평전과 공연이 제작되고, 한형석 선생이 독립운동을 펼친 중국 시안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부산과 중국 예술가들의 국제교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주요 사업

학술발간	국제 심포지엄(11월 중), 연구원 한형석 평전 발간(10월 발간 예정)
공연제작	2020년 브랜드콘텐츠허itage사업 공모를 통한 선정 후, 11월 공연 예정
국제교류사업	중국(시안, 상하이), 대만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기획사업 추진 예정

문의: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051-745-7292), 문화공간팀(051-745-7247)

사회복지사가 보는 문화예술

윤성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는 사회복지사다. 인간화(humanization)는 사회복지의 목적이다. 브라질 교육학자 파울루 프레이리(Paulo Freire)의 개념어인 인간화와 맥이 같다. 모든 억압에서 벗어난 주체인 인간으로 살기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라는 말로 사회정책을 설명한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람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상식을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본주의자 매슬로우(Maslow)가 인용하고 추구한 '자아실현'은 인간화의 구체적 모습이다. 클레멘트 코스¹⁾로 현대 인문학 대중운동을 열었던 얼 쇼리스(Earl Shorris)가 요구한 '위험한 시민' 역시 동일한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인간 중심 문화화에서 생명 중심 문화화로 도약해야 한다. 현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바다.

사회복지의 최대 적은 '수치심'이다. 불평등과 상품화는 서로를 견인하여 배제하는 사회를 만든다. 배제적 사회라는 괴물은 인간의 수치심을 먹고 산다. 누가 누구를 수치스럽게 하는가는 괴물 권력의 척도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항구적 대립 이면에는 수치심을 사용하고 기생하는 자와 수치심에 갇힌 자의 긴장이 박혀 있다. 사회복지의 '가장 선별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을 수치스럽지 않게 하는 보편적 전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출발한다. 기존의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수치심'으로부터의 자유는 생명 존중이라는 문화 토대 구축으로부터 가능하다.

사회복지자는 품위있는 사회를 추구한다. '수치심' 따위를 가지고 힘을 내 세우는 천박한 사회를 거부한다. 삶의 품격은 품위 있는 사회가 낳는다. 품위 있는 사회는 고클한 문화를 만들어서 모든 이와 공유하는 이량이 있다. 사회복지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부터 최상위 욕구까지 자유로이 욕망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근대 사회 정책가들은 귀족이 소유하고 누리던 빌라와 궁전을 모든 시민에게 살게 하려는 욕망이 있었다. 사회주택으로 실현하였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현대식 부엌은 마가레테 슈테-리호츠키(Margarete Schuette-Lihotzky)가 디자인한 '프랑

1) 1995년 뉴욕에서 시작된 노숙인, 마약 중독자, 재소자,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교육과정



크푸르트 부엌'으로 시작한다. 현대 아파트와 시스템 주방은 자산과 계급의 상징이다. 시작은 무산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궁전을 열고, 가사노동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려는 노력이었다. 슈테-리호츠키가 테일러리즘에 매몰된 디자이너가 아니다. 기술과 예술을 통해 모든 시민이 품위를 유지하기를 바랐다. 예술과 예술품과 예술문화를 영위하는 자격은 모든 시민에게 있으니까. 품위 있는 예술적 사회가 주는 삶의 품격,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만드는 생태계. 예술문화와 사회복지는 상보적이다.

내게 문화예술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무척 까다로워 어렵다. 경직과 이완, 창발과 모방, 각성과 적응, 주체와 연결, 고립과 독립, 충격과 탄성, 사회적 자유와 공적 평등... 이항 대립적 개념이 마구 섞여 있어 복잡하기 그지없다. 개념적 이해와 별개로 문화예술이 미치는 힘은 강력했다. 소통과 관계의 힘은 무엇보다 컸다. 제대로 된 문화예술을 맞본 이들의 수많은 얼굴들에서 빛과 윤이 나는 것을 보았다. 새로운 생명력을 깨닫게 하거나 부여하여 일으키는 사례를 많이 만났다. 굳이 엘 시스템마 프로젝

트가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행위자가 사회적 영향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행위의 치밀함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영향력이었다. 인간화 과정에서 한 단계 도약한 생명화 작업에 대한 영감을 문화예술판에서 얻었다. 문화예술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가치가 충분하며, 기획과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현장 예술 판을 옆에서 넌지시 본 바를 부연한다. 레드 오션이 아니라 레드 슬럼에 가깝다. 레드 오션이야 출혈 경쟁하는 시장이지만, 레드 슬럼은 이해관계를 고착하여 약육강식이 자연스러운 폐쇄공간이다. 현장예술 판에서 살아 움직이는 몸짓들만 봐도 가히 존경스럽다. 하지만 아름답지는 않다. 다른 현장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이 심하다. 인간화와 상품화 간의 간극이 너무 좁아 긴장을 떨쳐낼 수 없다.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장미는 무척 아름답다. 그 장미를 보자고 쓰레기통을 집안으로 모셔올 필요는 없다. 황무지를 갈아엎어 비옥한 토양을 만들면 더 많은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2018년)

고윤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정책개발 담당

시작하며

부산문화재단은 2012년부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 리사업(국비)’을 주관하며, 인종·민족·장애·성별·세대 등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했다. 특히 2016년 부산시 문화다양성 선언문 마련, 2017년 부산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2018년 전국 최초 문화다양성 시비 사업 편성을 주도했다. 그러나 문화다양성은 시대,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개념을 명료화하고 부산의 특성을 반영할 근거가 필요했다. 이에, 부산의 문화다양성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및 실태 조사를 추진했다.

조사목표

조사 목표로는 ①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수립, ②분류 체계에 따른 인구구조 특징 파악, ③분류체계에 따른 여건 현황 파악, ④분류체계에 따른 부산 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파악, ⑤향후 부산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제시 등 총 5개 목표를 설정했다.

조사설계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추진했고, 문헌 분석-자문회의-시민 인식조사-관계자 인터뷰를 병행했다. 다양한 영역별 연구자 6인, 활동가 6인을 각각 자문그룹과 관계자 그룹으로 선정했다. 분류체계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체계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중점을 둔 부산시민 대상 인식 조사는 15-79세 1,200명을 대상으로 하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은 대인면접조사를 병행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였다. 설문 문항에 가급적 모호한 개념 지표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지표를 활용하려 했고, 국내·외 타 조사 결과와 비교해 부산시 특징을 발견하는데 조사의 역점을 두었다.

조사결과

다양한 조사 결과의 함의가 있었지만 그중 총 4개의 키워드를 소개해 본다.

1대 키워드 : 부산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전국 평균보다 높아

부산시민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나 전국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에 26% 만이 그렇다고 했지만, 부산 시민은 34%가 동일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2대 키워드 : 문화다양성 인식에 비해 소수집단 수용도는 전국 평균 이하
반면, 소수집단 수용도(가족 및 동네 이웃)는 전국 대비 낮았다. 이는 문화다양성의 개념 이해 부족이거나 소수집단 차별에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난민과 성소수자가 수용도가 가장 낮았고, 외국 인이라도 출신 배경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인식을 했다. 전반적으로 소수집단과 접촉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수용도가 높았다.

3대 키워드 : 젊은 층에 대한 편견 높고, 성평등 인식 전국 평균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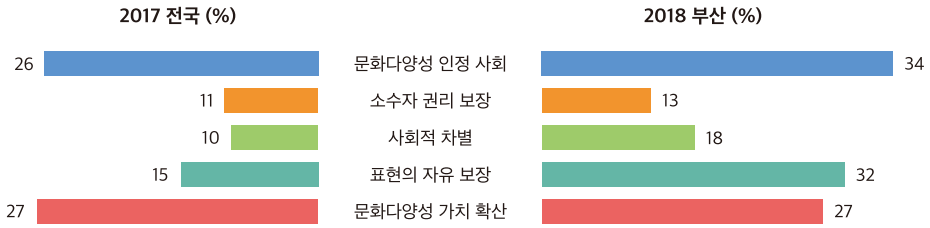
사회갈등 중 젊은 층에 대한 편견이 노년층에 비해 크고, 성평등 인식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지방 차별의 불신이 남아있다.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는 전체 응답자의 10%가 동의했으나,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다’는 31%가 응답했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동료의 성별은 상관없다는 응답은 전국 82%이나 부산은 73%에 그쳤다.

4대 키워드 : 20대 여성 차별에 가장 민감, 30대 남성 성별 불평등과 노인 인식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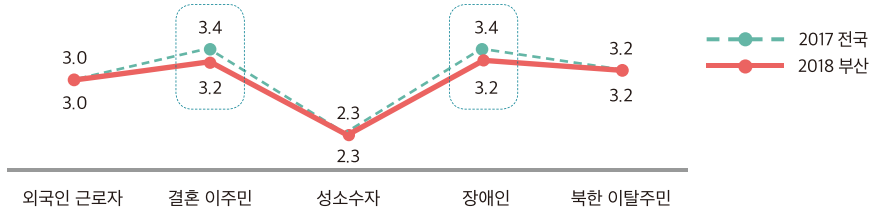
소수집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은 20대 여성에서 가장 높았다. 30대 남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기업 최고 경영자로 일을 더 잘한다’는 문항에 동일 연령 여성보다 30% 이상 높은 응답을 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이나 유일하게 30대 남성만 여성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정책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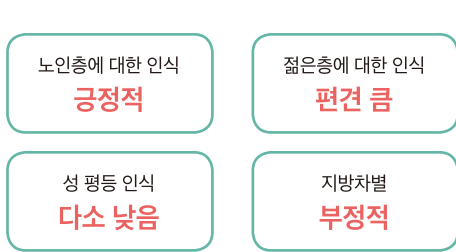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 이해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소수집단에 대한 이해와 접촉을 촉진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성별·연령별 인식 차이가 큰 만큼 맞춤형 접근과 무의식 속에 퍼져있는 부산의 가부장성을 수면 위로 올리는 방안이 문화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10대에게는 다문화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소수집단과 여성 혐오 인식 개선이 시급하며, 20-30대 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부산 시민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지방 차별 인식 완화를 위한 제반 환경 마련과 장애인 친화적인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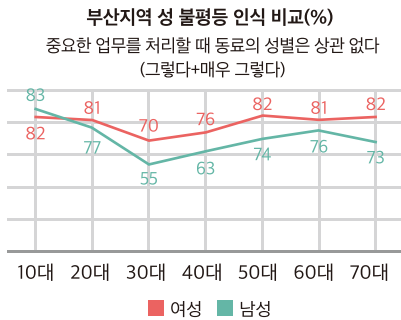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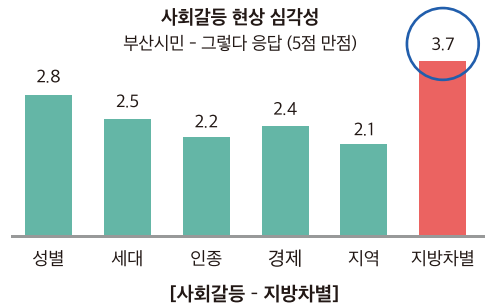
[전국 대비 부산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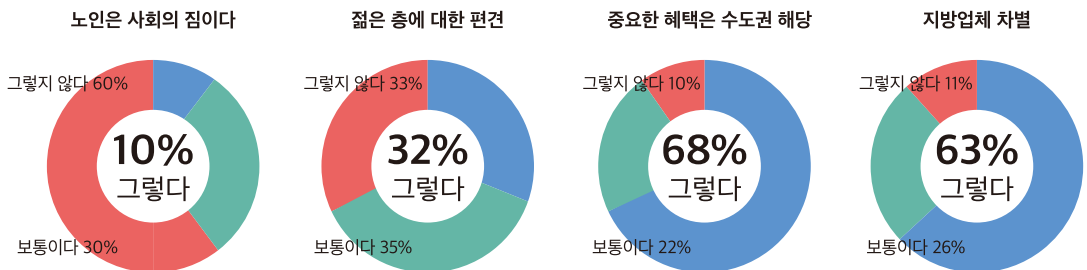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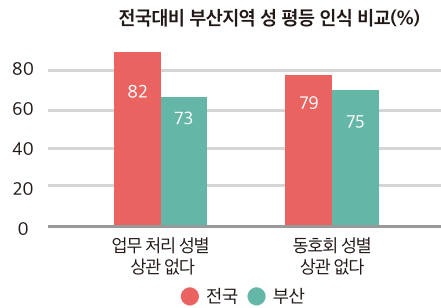
[전국 대비 부산 소수집단 수용도]



[부산시민 사회갈등 인식 결과]



[사회갈등 - 성 불평등]



[사회갈등 - 세대]

부산문화재단

부산의 정신, 부산의 삶, 예술로 기억하다! (02.14)

부산문화재단은 한형석(1910~1996)선생 탄생 110주년을 맞아 그의 일대기를 담은 공연을 제작한다. 이와 함께 한형석 선생이 독립운동을 펼친 중국 시안, 상하이를 중심으로 부산과 중국 예술가들의 국제교류사업도 펼쳐질 예정이다.

부산 문화예술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합니다-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 리뉴얼 오픈 (02.24)

부산문화재단은 오는 3월부터 「부산 문화예술 전자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개편,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전자아카이브에는 정책 아카이브 기능이 추가되어 문화재단의 정책 관련 자료 와 더불어 주요 문화정책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홍티아트센터 전시, 온라인으로 관람하세요. (03.23)

부산문화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홍티아트센터의 휴관이 연장됨에 따라 내부전시로 오픈했던 홍티아트센터&큐슈예문관의 국제교환 레지던시 교류작가의 결과전시를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문화재단, 창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가치 실현 (03.27)

부산문화재단은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현의 단계로 '꿈꾸는 예술터'와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 활동으로 '일과 삶의 균형' 찾아 (02.0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이전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 등, 문화·여가 관련 3가지 국가승인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꽃피운다 (02.10)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0일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 선출 (02.17)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13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2020. 2. 11.~14.)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 차기 제14차 위원회(2021. 2. 2.~5.) 의장으로 선출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03.20)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후보자(문학, 미술, 연극, 전통예술, 문화일반 분야 등 5개 분야)를 공개 모집하였다.

강릉시, 부산 북구, 밀양시, 장수군, 청주시에 '꿈꾸는 예술터' 만든다 (03.24)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릉시, 부산 북구, 밀양시, 장수군, 청주시 등 5개 지자체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를 만든다.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2019 문예연감(2018년도 기준)」 발간, 최근 3년, 문화예술활동 연속 증가 추세 (03.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3월 11일, 2018년 한 해 동안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국악, 양악, 연극, 무용) 등 6개 분야별 창작 발표 활동 현황과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수록한 '2019 문예연감(2018년도 기준)'을 발간하였다.

제 5회 국제예술교육실천가대회 국제공모 시작 (02.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ITAC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5회 국제예술교육실천가대회'의 국제공모가 시작되었다. 올해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화예술교육과 그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의 실천에 집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신규 추진 (03.26)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가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뮤지컬<친정엄마> 피해 예술인, 소액체당금 통한 구제방안 열려 (03.1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뮤지컬 <친정엄마> 피해 예술인 중 25인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향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게 될 미지급액은 총 약 8,400만원이다.

2020 기반조성 지원사업 '우리동네 흩씨되어' 공모 시작 (03.23)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020년도 기반조성 지원사업 '우리동네 흩씨되어' 공모를 3.20.(금) ~ 4.10.(금)까지 진행하였다.

경남 7개 지역문화재단 협의회 발족 (02.12)

경상남도 7개 지역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한데 뭉쳤다. 협의회는 도내 지역문화재단 간의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역의 문화정책 역량강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발족되었다.

지역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술인지원센터' 신설 (02.27)

(재)대구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예술인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구문화재단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개설한 예술인지원센터는 지역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설한 기구이다.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강원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 진흥원

대구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2020 대전원로예술인구술채록사업’ 구술자 선정, ‘시민추천’ 시행 (02.27)

대전문화재단은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2020 대전원로예술인구술채록사업> 구술자 선정을 위한 대전문화예술단체 및 시민 추천 접수를 시행하였다.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공개 (03.27)

대전문화재단은 재단의 주요사업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공개했다.

서울문화재단

2020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공모(~3.17.) (03.04)

서울문화재단은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문화예술단체를 3월 17일까지 모집하였다.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은 서울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맺어주는 창작지원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기업 기부금을 포함해 약 7억 6천만 원을 25개의 예술단체에 지원해 기업과 예술단체의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인디음악 생태계 지원 <서울라이브> 공모(~4.12.)(03.26)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는 흥대 인디음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공연을 발굴하기 위한 <서울라이브> 지원사업 공모를 3월 26일(목)부터 4월 12일(일)까지 진행했다.

울산문화재단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시스템 US’ 전국 최초 개발 및 운용 시작 (03.11)

울산문화재단은 울산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단체·기관의 사업 운영의 편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시스템 US(이하 US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피해 예술인 지원대책 마련 (03.16)

울산문화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울산문화재단이 마련한 방안은 △ 피해 예술인 실태조사 △ 메세나 기금 조성 △ 창작 공간 무료 대관 △ 지원금 사레비 선지급 △ 중기 대책방안 수립 등 5가지 부문이다.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문화의길 II 총서 특별판 『인천, 100년의 시간을 걷다』출간 (02.07)

(재)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에서는 문화의길 II 총서 특별판인 『인천, 100년의 시간을 걷다』를 출간했다.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총괄 기획한 이 책은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건축학(이연경), 국문학(문순희), 역사학(박진한)을 전공한 세 명의 학자가 1918년과 2018년을 오가며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인천의 근대 풍경을 생생히 전달한다.

전북문화 관광재단

도내 문화예술계 코로나19 위기에 다양한 대책 강구 (03.09)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북의 문화예술계에 들이닥친 위기에 맞서 예술 공공 일자리 사업, 창작준비금, 문화예술교육강사 시수 보전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했다.

충북문화재단 정부공모 잇단 선정 (03.08)

충북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 인생나눔교실 사업' 충청권 주관처로 최종 선정됐다. 또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사업(2020~2022)', '2020 문화가 있는 날-청춘마이크 사업'에 연달아 선정되며 총 9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충북문화재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산시 정책 대응 (03.23)

부산연구원은 23일 BDI 정책포커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산시 정책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시민의 81%가 코로나19 확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상 활동 위축과 사회 전반 활력 약화로 가계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연구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 불안 해소와 경제적 피해 지원의 두 방향의 정책 대응을 제시했다.

부산연구원

'국제관광도시 첫걸음, 관광 수용태세 개선부터' (02.21)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월 28일 전국 최초로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됨에 따른 첫걸음으로 관광 수용태세에 대한 시민 의견 응모 SNS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부산관광공사

2020년 부산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개최 (03.09)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사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산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0년엔 부산 디자인 '업그레이드' (02.06)

부산디자인진흥원이 글로벌 플랫폼 구축과 디자인 관련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2020년 계획을 발표했다. 진흥원은 올해 디자인 주도 지역산업의 성장동력 창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디자인 선도, 디자인 중심 지역특화 기업 및 사회적 기업 창출이라는 3가지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디자인 진흥원



Vol. 발행일: 2020.04.20. | 발행인: 강동수 |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3

TEL 051-745-7205~7 | www.bscf.or.kr | 편집위원: 송교성 송진희 이지훈 차재근 | 편집기획: 안재홍 원항미 | 디자인 제작: 순간과영원 TEL 051-244-7504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